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논산시
- 연무대지역아동센터



2019. 1

박*진

처음으로 이화봉사단에 참여했는데 정말 기대한 만큼이나 좋은 벗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활동마다 담당자를 정했지만 그런 구분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서로 도와서 활동 진행을 하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팀원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한 것이 처음이었던 만큼 중간 중간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찾아 순탄하게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의 아이들과 5일을 함께 지내면서 사랑과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학생들마다 어떤 식의 사랑을 주어야하는지, 이 학생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학생들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들을 만났고 1학년 겨울 방학을 정말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이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벗들과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화봉사단에 처음 참여하는데 팀장까지 맡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좋은 팀원들을 만나 굉장히 좋았고,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과 아이들에 관해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 및 마무리까지 책임지며 책임감과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동안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팀원들과 항상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듣고 평소에 그와 관련된 상처가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하며 생각해 보기도 하였고, 어른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관심과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했던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5일 동안 6명이서 함께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같은 팀원, 센터 사람들, 아이들 등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화봉사단을 통해 또 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조*영

이화봉사단에 다녀온 동기의 추천으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줄까?', 우리가 준비해가는 활동들을 과연 재미있어 할까?' 라는 고민도 많았지만 막상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보니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마웠고, 그런 아이들 덕분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처해있는 상황, 환경 등을 항상 생각했고 혹시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봉사를 하러 간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활동이 끝나고 팀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또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루 동안 했던 활동들을 피드백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다음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웃음도 많았던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화봉사단 덕분에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박*진

봉사를 가기 전,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봉사기간동안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주었고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팀원들끼리 협동하여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여러 활동을 하며 좀 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며 이해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프로그램이 끝난 후 팀원들과 가진 피드백 시간에서 하루를 반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 발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5일간의 봉사활동 기간동안 아이들로부터, 팀원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 아이들과 그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봉사단원들을 보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에 대해 깨닫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마지막 날, 아이들이 불러주었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노래를 영원히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화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강*진

이번이 첫 이화봉사단 활동이자 첫 교육 봉사활동이었기에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활동을 시작하고 나니 좋은 벗들과 사랑스러운 멘티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활동이 끝날 즈음에는 끝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활동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특히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제가 경험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의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큰 인생의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넓고 다양한 환경과 세상에 대해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성장했던 환경과는 너무 다른 괴리감에 작은 충격을 받아 미래에 간호사로서 어떤 교육 봉사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며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아이들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어 아이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며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함께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 고민하며 최선을 다한 저 자신과 팀장님, 팀원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고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이화봉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싶습니다.

권*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인 논산 연무대로 봉사를 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이러한 걱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먼저, 연무대지역 아동센터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말 하나하나를 들으며, 이때까지 저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4박 5일간을 지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많이 고민해서 보람찼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간 봉사단원들 덕분에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고민이 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힘이 들 때는 서로 응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마냥 편안했던 시간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한 이화봉사단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화봉사단으로 활동할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